

# 16강! 행복하다 대~한민국

## 더반의 새벽 낭보...원정 첫 쾌거



2010 남아공월드컵 나이지리아와 3차전이 열린 23일 이정수가 동점골을 넣고 나서 환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나이지리아와 2대2 비기며 조 2위로 사상 첫 원정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56년만의 새역사



### 이정수·박주영 골...나이지리아와 2대2 무승부 26일 밤 11시 우루과이와 8강행 놓고 맞대결

이제 8강이다. 한국 축구가 '약속의 땅' 더반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태극전사들이 불면을 밤을 보낸 전 국민의 뜨거운 응원 속에 마침내 월드컵 출전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꿈을 이뤄냈다. 본선 무대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던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던 선배들의 한을 풀어준 값진 승전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창조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 축구사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3일(한국시간) 더반의 모저스 마비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

파이널스' 나이지리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B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칼루 우체에 선제골을 내주고도 이정수의 동점골과 박주영의 추가골로 역전에 성공한 뒤 야쿠부 아이예그베니에게 페널티킥을 헌납해 2-2로 비겼다. 이로써 1승1무1패(승점 4점)를 기록한 한국은 같은 시각 그리스를 2-0으로 누르고 3전 전승을 올린 아르헨티나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그리스는 1승2패, 나이지리아는 1무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까지 7회 연속(총 8회) 본선 무대를 밟았지만 안방에서 개최된 한일 월드컵 때 준결승 진출

을 빼면 앞선 여섯 차례 원정 월드컵에선 유럽과 남미의 벽에 막혀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 허정무 감독은 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 2-0 완승을 지휘해 월드컵에서 처음 승리를 지휘한 한국인 감독이라는 영예를 안은 데 이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까지 일궈냈다. 허 감독은 경기 직후 "이제 갈 때까지 가야 한다. 우리 선수들 아직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8강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국은 오는 26일 오후 11시 포트엘리자베스의 벨스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A조 1위 우루과이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전반 8분 기성용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의 포문을 연 한국은 하지만 전반 12분 순간적인 수비 실수로 선제골을 내줬다. 수비형 미드필더 김정우가 빠른 드리블을 하는 치디 오디아에게 오른쪽 측면을 뚫렸고 오디아가 김정우를 뿌리치고 낮게 크로스를 했다. 왼쪽 페널티지역에 도사리던 칼루 우체가 차두리를 뒤에 두고 오른발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위험지역에서 우체를 놓친 차두리의 실책이 뼈아팠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 38분 왼쪽 측면을 빠르게 돌파하던 이영표가 치네 두 오바시의 거친 태클로 오른쪽 페널티지역 외곽에

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키커를 맡은 기성용은 오른발로 감아쳤고 회전이 걸린 공은 수비수 벽을 넘어 오른쪽 골지역에 있던 이정수의 머리를 향했다. 이정수는 지체 없이 달려들며 헤딩을 꽂았고 머리를 맞은 공은 다시 이정수의 오른발에 맞은 뒤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정수는 그리스와 1차전에서 결승 선제골을 사냥한 데 이어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동점골을 뽑아내 골넣는 수비수로 자리매김했다. 전반을 1-1 균형을 맞추고 마친 한국이 여세를 몰아 공격의 고삐를 풀 끝에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주인공은 간판 골잡이 박주영이었다. 박주영은 후반 4분 대니 시투의 파울로 아크 왼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직접 키커로 나섰다. 박주영은 오른발로 강하게 감아쳤고 예리하게 휘어진 공은 오른쪽 골네트를 출렁였다. 역전골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후반 24분 동점골을 뽑아냈다. 교체 투입된 김남일이 왼쪽 페널티지역에서 마크하던 오바시의 공을 가로채려다 뒷다리를 걸어진 것. 키커로 나선 아이예그베니는 골키퍼 정성룡을 속이고 왼쪽 골문으로 침착하게 차 넣어 2-2 동점을 만들었다. 김남일의 수비 실수가 부른 동점골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